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울산지역 여성고용 특성과 정책과제<sup>1)</sup>

박민정(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임금손실 등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써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돌봄영역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업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가·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음.<sup>2)</sup>
-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2분기 일자리를 잃은 41만 명 중에서 여성이 61%(25만 명), 남성이 39%(16만 명)으로 **여성일자리 감소와 소득 손실이 남성에 비해 커짐에 따라 성별 빈곤율의 차이도 확대**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3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일자리 위기가 여성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sup>3)</sup>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특징으로 일시휴직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3~4월 기준으로 일시휴직자 119만 5천명 중 여성이 77만 3천명으로 전체 일시휴직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일자리(숙박, 음식, 교육, 조건서비스업 등)에서 취약계층이 주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직업전망에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성별 임금 격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여성고용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성보다 비정규직, 시간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특히 시간제는 여성이 231만명, 남성이 84만6천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2.7배 가량 많았으며 이는 당연히 임금도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1,311천원의 차이가 나타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고 가정 내 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을 위한 경제활동 포기 여성도 늘고 있으며 가족돌봄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남.** 돌봄책임의 성불평등이 여성 일자리 위기로 더욱 내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울산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여성 고용현황 파악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본 BRIEF 26호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년 기본연구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울산지역 여성고용 특성과 정책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노동과 희망(2020.11.30.), 「코로나 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http://news.inochong.org/detail.php?umber=2799&thread=14>

3) 임윤옥(2020). 코로나 19 여성노동자 “조용한 학살”, 여성우리(64). 6-9.

# ① 코로나19 이후 사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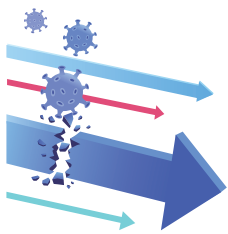
## 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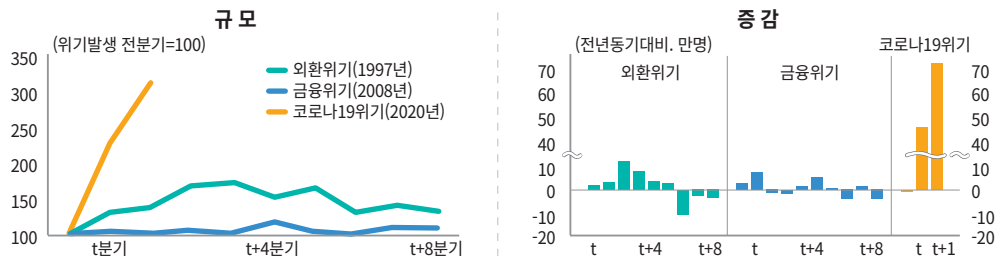
- 사회적 변화: 전국적 코로나 블루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성의 자녀양육과 돌봄 무게 가중(남녀고용 불균형 더욱 심화)
  - 여성의 자의 휴직 또는 타의 실직 등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심해지며 여성 자살률까지 증가되고 있음
- 현 상황에 따른 사회적 현황
  - 20·30 여성 자살 대두에 따른 정부의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나 정책 체감도 낮다는 비판
  - 이에 정부보다 생활에 좀 더 가까운 지자체의 거버넌스 마련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의 시스템 논의 필요
  - 실직 후 한 달 사이 자살률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정신건강 문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 및 여성고용시장 변화

- 경제적인 변화
  - 2020년 한국 GDP 하회, 특히 서비스업 경기 위축
  - 코로나19 장기화 시 제조업도 부정적 영향 예상
  - 2020년 연수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 보이며, 기계, 석유 등 고성장을 및 수출 증가세도 보임
- 여성고용시장 변화: 코로나19 이후 여성고용 시장 큰 어려움 직면
  - 성별 취업자 감소 조사 시 일자리를 잃은 3명 중 2명은 여성으로 계속 증가 양상 보임
  - 특히, 남녀모두 고용 하락하였으나 대면서비스 취업자 수 감소 등으로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이 크며, 일시휴직보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대면접촉이 많은 일자리(숙박음식, 교육, 보건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된 타격 입음
  - 임시휴직자 119만 5천 명 중 여성이 77만 3천명으로 일시휴직자의 69% 차지
  - 여성의 비정규직과 시간제 비중 증가하여 코로나19 발병 후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이 실직 경험



위기별 일시휴직자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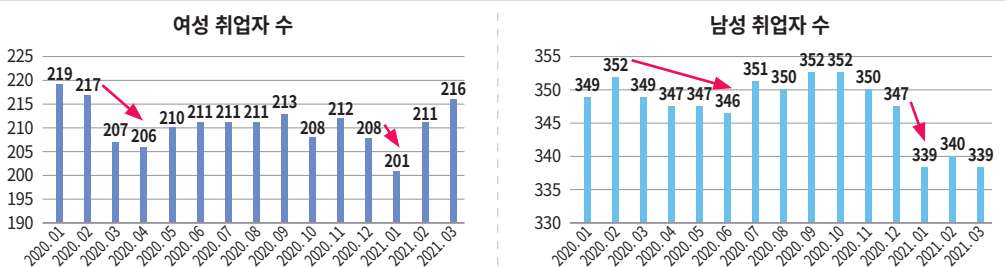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2020.09.03).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이슈노트 2020-12호

## 일자리 위기와 젠더 특성

-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여성과 남성 간 취업한 사업 분야의 차이 확인 가능
  - 여성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취업자 감소세가 뚜렷함
- 울산시 취업자 현황
  - 산업의 경우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 감소 지속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취업률 급감이 그려지고 여성의 경우 취업 감소에 해당 받지만 증가에는 큰 통계가 잡히지 않아 취업에 있어 지속적 열세의 상황임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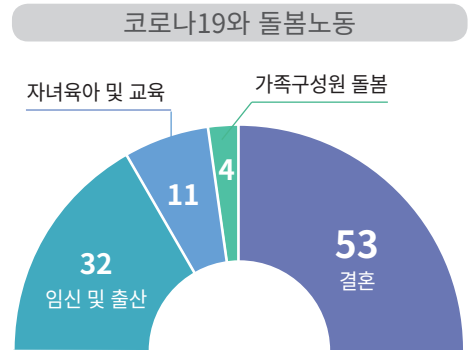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 울산시 성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일자리 위기와 젠더 특성

- **여성의 돌봄노동 증가**
  - 코로나19에 따른 여성의 돌봄노동의 지속적 증가
  - 특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 결혼(53%), 임신 및 출산(32%), 자녀육아 및 교육(11%), 가족구성원 돌봄(4%)으로 나타남
  - ※ 2019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여성 취업자 중 돌봄노동자 증가(여성 취업자 178만 2천명 중 48만 5천명인 27.2%가 '돌봄' 업종 취업)
  - ※ 보육 관련 직종 전반에서 유급노동의 여성화가 두드러짐



## 우리 시 특성 및 문제점과 4차 산업으로의 도약

- **울산광역시 특성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가 2020년은 2019년 동원 대비 감소한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됨
  - 울산의 3대 주력업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지역 내 특화산업의 편중을 나타냄
  - 울산 1인당 총생산은 6,53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전기 가스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편차가 클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른 1인당 임금 편차 역시 클 것으로 보임
  - 단, 울산 내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의 고용 참가가 연이어지고 있어 고용은 계속적 감소 추세 보임
- **4차 산업으로의 도약**
  -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이후 급속화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등의 구체적 정책 마련
  - 향후 10년 간 울산시 사업경제 분야 대응전략은 'R&D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등에 있음
  - 신산업으로의 전환 및 미래 산업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창업활동 공간 조정 필요



## ② 울산지역 여성고용 지원방안 조사 결과

### I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 2021년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여성 자영업자 제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근로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자, 재직자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를 경험한 근로자 총 298명
- 조사 기간 : 2021년 3월 29일 ~ 4월 9일

### I 조사내용

- 응답자 배경 요인 - 연령, 성별, 현 거주지, 가족구성, 주소득자
- 직장 고용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현 근무지 및 사회보험가입현황 등
- 실직/해고의 과정 및 재취업 과정 - 실직/해고의 시기 및 사유, 재취업 필요 지원 등
- 가정 내 돌봄 - 주된 돌봄자와 코로나19 전후의 돌봄분담의 변화 등
- 정부지원정책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지원정책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등
- 일상변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립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 울산지역 여성고용 지원방안 관련 설문 결과

## 직장 내 변화



- 생계형태 변화
  - 맞벌이(61.1%→30.5%) 크게 감소, 외벌이(2.7%→32.6%) 크게 증가
  - 취업상태 전반 감소 및 비정규직 많아 실직/해고 위험 증가
- 직장 내 어려움: 고용유지 중인 응답자
  - 회사불안정성과 고용불안정성 악화
  - 건강영역: 정신건강 나빠짐(54.7%), 출퇴근시 감염위험(29.3%) 호소
- 고용변동으로 인한 어려움: 고용변동 응답자
  - 생계불안(66.2%), 이직의 어려움(21.6%) 호소
  - 미취업자들의 재취업 노력 결과: 취업실패(77.0%), 재취업 미계획(13.5%)

## 가정 내 돌봄 변화



- 돌봄의 변화
  - 주된 돌봄자는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님/친척)으로 큰 변화 나타나지 않음
  - 단, 돌봄분담정도는 코로나19 이후 많아진 것으로 응답(코로나19 확산 이전\_일반적 수준 응답 76.8%, 많다(많음+매우많음)는 응답 13.5%  
코로나19 확산 이후\_일반적 수준 응답 65.8%, 많다(많음+매우많음)는 응답 27.8%)
- 돌봄 부담의 변화
  - 돌봄 방법의 어려움 및 교육시설 이용 어려움 호소

## 개인의 일상 변화



- 일상의 변화
  - 고립감 증가\_고립감을 느꼈다라는 응답(느꼈다+매우느꼈다) 76.2%로 매우 높은 비중
- 신체 및 정신건강의 변화
  - 신체 및 정신건강은 변동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좋아졌음' 보다 '나빠졌음'이 높음,
  - 신체건강은 나빠졌다라는 응답(매우나빠졌다+나빠졌다) 29.2%, 변동없음 47.3%,
  - 정신건강은 나빠졌다라는 응답(매우나빠졌다+나빠졌다) 32.5%, 변동없음 35.9%
- 신체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운동부족(46명) 및 외부활동 제약에 따른 체력저하(42명)
- 정신건강이 나빠진 이유로는 외부활동 제한과 사람들 간 교류축소에 따른 스트레스(73명)으로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 모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상황 지원 정책 인지도 정도



- 중앙정부정책 인지도 정도
  - 중앙정부의 계층별 지원방안은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 나타남
  - 중앙정부의 정책 인지도 순: ①긴급고용안정지원금(39.6%), ②긴급경영안정자금(23.8%), ③신혼/생애최초특별공급소득기준완화(28.9%), ④긴급복지지원제도(25.2%)
- 울산광역시 정책 인지도 정도
  - 보육재난지원금, 울산시긴급재난지원금 등 높은 인지도와 이용경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 울산광역시 정책 인지도순: 보육재난지원금(43.0%), 긴급재난지원금(84.6%)
  - 울산광역시 정책 이용경험순: 긴급재난지원금(89.7%), 보육재난지원금(28.1%)
  - 울산광역시 정책 도움정도순: 긴급재난지원금(89.6%), 보육재난지원금(54.9%)

## 여성근로자 대상 강화필요 요구 정책



- 여성근로자 대상 강화 정책
  - 노동시장복귀지원, 생계유지지원, 돌봄지원정책등 강화정책필요(이 중 노동시장복귀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음)
- 노동시장 복귀지원 필요 정책
  - 여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필요한 능력개발 지원 강화가 강하게 제기됨
  - 노동시장 복귀지원 정책 순: 여성적합일자리개발(70.8%), 공공일자리발굴(61.1%), 경력중단 여성훈련지원강화(69.8%)
- 돌봄지원 강화 필요 정책
  - 돌봄지원 강화 필요 정책 순: 공공돌봄시설확대(66.1%), 자녀돌봄비용지원(66.1%), 유급가족돌봄휴가확대(64.4%)
- 그 외 필요 정책
  - 노동자 대상 생계유지지원정책은 상대적 필요성 낮음
  - 장기휴직시 급여지원(50.3%),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48.3%), 대상자별 지원금 증액(46.6%), 고용보험가입강화(47.0%), 실업급여요건강화(47.7%) 순으로 나타남

# ③ 울산지역 여성고용 지원방안 전문가 조사 결과

## I 조사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 : 울산지역 고용 전문가 10명
- 조사 기간 : 2021년 4월 5일 ~ 9일

## I 조사내용

- 코로나 전후 여성고용 현황 평가
- 앞으로의 변화예측 및 정책 과제

※ 울산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후 여성고용 현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정책과제에 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I 울산지역 여성고용 지원방안 관련 전문가 면접 결과

울산지역 여성 고용 확보와 안정을 위한 전문가 전략 방안	
<p>울산시 여성고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는 산업 구조의 특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자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가부장적 직업의식 또한 강해 여성 고용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li> <li>- 이에 여성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중 하나로 관광서비스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투자 계획을 진행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추진 불가</li> <li>-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앞으로의 산업구조의 다각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체계가 없다면 여성의 안정적 취업과 이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li> </ul>
<p>여성고용 상황에 대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시는 산업고도화를 통해 정보-의료-교통-서비스 산업 등 지식집약적 4차 산업 변화에 노력중 이며 이때 새로운 사업 발생과정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업, 유통업에 여성과 중년층 취업 구조의 체계화 시도</li> <li>- 기회의 측면: 남성중심에서 기술 산업 중심으로 변화, 경제활동 여성 진입 수월해짐</li> <li>- 위기의 측면: 여성은 물론 남성의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 수 있음</li> <li>- 산업 변화에 대한 일자리 부분의 고려 및 정부도 산업 구조적으로 여성일자리 환경이 취약한 울산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고용환경 질 높이에 관심 가질 필요 있음</li> </ul>
<p>전문가의 정책적 제안 및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의 역할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산업 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전문적 지원 체계 갖춤 필요</li> <li>· 기업과 정부: 일자리 만드는 역할</li> <li>· 교육기관: 일자리 맞춤 전문 교육 체계화 ▶ 구직·구인 간극 최소화 노력</li> </ul> </li> <li>- <b>직업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일센터 활용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 컨설팅, 교육을 통한 구직자 역량 강화 노력은 긍정적 변화로 봄</li> <li>· 이에 따른 새일센터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대응 인력 보완 등 필요</li> <li>· 전문적이고 업무 실질적인 교육체계 확보 및 단기간 실적 위주 평가보다 정성적 프로그램 평가 요구</li> </ul> </li> <li>- <b>다양한 근무유형과 가족돌봄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근무 등으로 일자리 업종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 가족돌봄과 병행이 필요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li>· 가족돌봄과 일자리 병행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돌봄시스템 개선의 질적인 부분 논의 선행 요구</li> </ul> </li> </ul>

## ④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울산지역 여성고용 특성과 정책과제 제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울산지역 여성고용 정책방안으로 세 개의 접근 차원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 정책 방향으로 도출됨
- 여성 고용의 환경 조성 및 고용 유지 방안, 고용 유지의 확대 지원 방안, 여성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 19 지원정책 확대 등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에 걸친 여성고용 방향성을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임

### 목 표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울산지역 여성고용 유지·확대 방안

접근 차원	여성 고용 유지 방안 (여성적합 근무환경 및 여성근로자 고용유지 방안)	여성 고용 확대 방안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여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정책 방향	‘울산형’ 가족친화인증 제도 도입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여성 취·창업 공간의 확장	청년여성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정책 확대
중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의 산업구조 특징이 남성위주 고용구조 고착에 따른 여성적합형 근무환경과 적합 직종 개발 필요</li> <li>• 울산시만의 특성이 반영된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추가</li> <li>• 여성친화적인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책임은 개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 책임 (서비스의제도권 흡수와 공공재정 투입)으로 확장</li> <li>• 돌봄시설의 확대와 품질 관리의 최우선 추진</li> <li>• 돌봄의 완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보호자 개별비용부담 감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취·창업 지원 공간 필요 (단순한 고용 초점이 아닌 여성 본인의 능력과 아이디어 실현 기반 조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지원정책의 성인지적 특성 보강 필요</li> <li>• 취업 실적 중심의 지원정책보다 청년의 다양한 환경을 고용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범위 포괄 적용 (핀셋지원을 지양하고 취약계층 범위의 비정규직, 경력중단여성 등 포괄적용)</li> <li>• 여성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li> <li>• 관련 조례 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완 마련</li> </ul>